아중호수에 습지정원 조성

전주시, 11월까지 1억8400만원 투입 호수 상류지역에
물억새 · 수련 · 꽃창포 등 12만 그루 심어 생태보고로

전주 아중호수 생태공원에 사시사철 수련과 꽃창포, 물억새 등 다양한 습지식물과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정원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총 1억8400만원을 투입해 아중호수 상류 1만1000㎡ 부지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습지식물 12만여 주를 식재해 습지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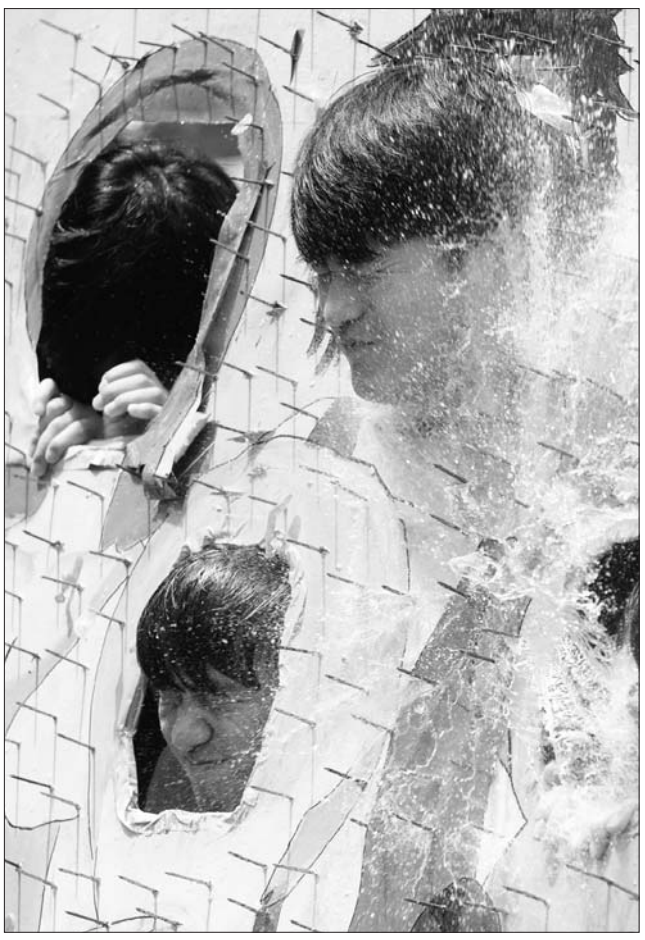
시에 발표에 따르면,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습지정원 조성은 호수 이용객이 산책로를 거닐며 봄과 여름에는 수련과 부처꽃, 꽃창포를 감상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물억새 군락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호수 상류인 습지정원 조성부지는 그간 지역주민들의 농업용 경작지로 활용되면서 호수 경관과 수질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손꼽혀왔다.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중호수가 본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로 축조된 시설(저수지)로, 영농기 등 계절별 수위 변동폭(H=2.0m)이 큰 만큼 단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호수 수위변화와 식재 식물의 생육상태를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식재식물을 추가 식재해 아름다운 습지정원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앞서, 아중호수에는 지난해 12월 총 길이 2.4㎞의 호수 순환산책로가 개통되면서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다. 또, 매년 4월이면 제방 인근 왕벚꽃이 만발해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다.

/송효철 기자



시원하게 터진 물풍선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대학교 축제 기간인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동제가 실시된 가운데 학생들이 물풍선을 맞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성료

'체육활동으로 노후생활을 즐겨요'

만 65세 이상 2100여명 참여
게이트볼 등 9개 종목 펼쳐

도내 14개 시·군 노인(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3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활기찬 노후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 된 '2019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정읍국민체육센터체육관 등 정읍일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 선수와 임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2100여명이 참여했고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체조, 탁구, 테니스, 고리걸기, 제기차기 등 총 9개 종목(일반종목 5개·민속종목 4개)이 펼쳐졌다.

이날 각 종목 우승팀을 살펴보면 게이트볼은 고창군이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정읍시가 그라운드골프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체조는 완주군이 1위를 차지했고 전주시와 익산시는 각각 탁구와 테니스 정상에 올랐다.

장수군은 투호와 제기차기 2종목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고리걸기는 순창군이 윷놀이는 무주군이 우승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3위팀에게는 상장과 상배 등이 수여됐다.

또 군산시로 게이트볼 종목에 출전한 최고령자인 고광영(93)·손경애(89·여) 어르신이 장수상을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노래와 무용 등 장기자랑을 하는 등 이날 하루 승패를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노인들이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육을 통해 전라북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노인생활체육대회를 만들었으며, 매년 대회를 개최, 실버체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변호인 참여권 강화' … 인권보호 효과 '톡톡'

전북경찰청, 변호인 참여 횟수 전년보다 30.5% ↑… 조언 · 상담 등 최대한 보장

전북경찰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이 큰 효과를 보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30.5% 대폭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지방청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은 과거 변호사의 형식적 조사과정 참여에서 벗어나 조사전 일정 협의 등 조사참여와 준비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조사내용 메모, 조사 중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없는 한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정책 시행 결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사단계 변호사 참여는 272건이었으나 이후 2018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는 355건으로 참여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내에서 활동중인 한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조사 입회를 자주하지만, 최근 들어 조사시작 전 정책설명에 대한 안내서 교부와 함께 메모지 서식을 활용토록 설명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한층 더 공고해졌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상주 전북지방청 수사과장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자기변호노트, 진술녹음 등 각종 수사개혁과제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수돗물 '먹을 만 합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 먹는물 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서 '우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정도관리 현장평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립환경과학원이 3년 주기로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자료 검증·평가를 통한 정도관리시스템을 현장 종합평가해 분석정확도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제도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파견된 황재석 전문연구관과 곽순철 연구원 등 2명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주시 대성실험실을 직접 방문해 실험실 기본평가, 문서평가, 자료검증, 개별면담 등 수질분석체계와 분석장비, 분석능력 및 측정분석기관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발표된 평가결과 중대한 미흡사항이 없었으며, 기본평가·문서평가·자료검증 등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에도 검사능력 평가인 수질분석기관 숙련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취득했으며 이번 현장평가에 대비해 첨단 분석 기기 50여종에 대해 정도관리/정도검증(QA/QC)을 실시하는 등 분석장비의 정밀도·정확도·민감도 보정 등 기기 안정화 작업과 반복적인 예비·추정·확정 실험을 실시하는 등 내부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강승권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이 국내 최고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와 분석, 연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한다는 신뢰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국내 위상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병원 김건영 교수
'젊은 의학자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영상의학과 김건영 교수가 최근 열린 2019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젊은 의학자상은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학문적 기대가 높은 젊은 교수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건영 교수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최고 영향력을 가진 학술지인 Radiology와 European Radiology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2018년 한해에 SCI급 논문 총 5편을 게재해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가동

전주시, 집중호우 · 태풍 · 폭염 등 시민 보호 총력 나서
인명피해 사전예방 등 기본 방침 10월까지 적극 대응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집중되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전주시가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재난대응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오는 10월까지 △협업기능별 상호협업체계 구축 △재난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운영 △취약시설 점검·정비 추진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급경사지·배수펌프장·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긴급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수·보강 등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신속한 재난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예비특보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원, 안전보안관 등 민간과 연계해 재해·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예찰활동을 진행하고 저지대 가옥 침수 등에 대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양수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책 TF팀을 구성 한다.

평소 이용률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400여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농촌마을 안내방송 실시 △폭염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주요 교차로에 얼음을 비치하고 주요도로에는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그늘막 60여개를 곳곳에 설치해 피해예방에도 힘쓴다는 구상이다.

유영문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야호학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본격 추진

시, 만수초에서 찾아가는 원탁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창의교육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30일 호성 작은도서관에서 만수초등학교 학부모 30명과 야미(야호학교 알리미)단, 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학부모 원탁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호학교는 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이번 원탁회의는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기 힘든 기존의 학부모교육 형태를 벗어나 학부모의 욕구를 파악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원탁회의는 세종시에서 부모교육 전문강사로 활동중인 상상+상생 박주연 대표와 함께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해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학무모 교육참여 의미와 중요성 △교육 참여를 막는 우리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차량털이 50대 붙잡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거리 · 상가에서
여성 신체 촬영 20대 검거

거리와 상가를 돌며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편의점과 식당,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5명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독서실 화장실서
여성 '도촬' 10대 불잡혀

독서실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모(15)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경 익산시내 모 독서실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A군은 독서실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이유 없이 욕설
흉기 위협 50대 검거

공황장애를 앓는 50대가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경 익산시내 한 찜질방에서 TV를 시청하던 B모(60)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C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손님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유 없이 B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C씨에게 격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공황장애를 앓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병원에 입원시킬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술집에서 다른 손님
현금 훔친 20대 검거

술집에서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경 전주시 완산구 모 술집에서 B모(23)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